

## 2011년도 사업관리 최우수사업 선정

— 사업관리 수행성과 평가 결과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2011년도 주요사업(26개 사업단위, 262개 계약단위)에 대한 사업관리 수행성과 평가를 완료하고, 최우수 사업과 우수 직원을 선정·시상하였다.

사업단위 최우수 사업은 수원~인천 복선전철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우수 사업에는 왕십리~선릉 복선전철사업과 진주~광영 복선화사업이 각각 선정돼 이사장표창과 상금이 수여되었다.

또한, 계약단위(WP) 평가결과 총 5명의 우수 직원이 선정되어 이사장표창과 부상을 받았다.

한편 본부는 2007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사업관리 수행성과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량평가(사업비집행율, 공정추진율 및 분석보고 적정성 등), 관련부서 위임평가(품질·안전·환경, 시스템 활용도) 및 이해관계자 만족도 평

가를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사업관리역량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내부 부서평가에도 많은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전반적인 사업비 집행을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타 25개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가 고르게 상승하여 전년 대비 9.8%향상 된 평균 88.4점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건설본부는 금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부정책과 CEO의 경영방침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건설본부 김한준 기자)

### 사업단위 평가결과

구분	사업명	담당부서	평가그룹
최우수 사업	수원~인천 복선전철	수도권본부 남부건설처 수인선PM	전체
우수 사업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수도권본부 남부건설처 분당선/민자사업PM	1그룹
	진주~광양 복선화	호남본부 건설처 전라선/경전선PM	2·3그룹

### 계약단위(WP) 평가결과

구분	계약명	담당자	분야
(최우수 사업) 우수 직원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건설	수도권본부 남부건설처 김도형 과장	노반
	수원~인천 복선전철 남동의 2개역사 신축	수도권본부 남부건설처 김일용 차장	건축
(다수 건) 최우수 WP담당자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7~9공구 노반건설 외 2건	수도권본부 북부건설처 서윤식 차장	노반
(전체 계약단위) 우수 WP담당자	동해선 포항~삼척 제1공구 노반건설	영남본부 건설처 박진용 차장	시공
	호남고속철도 2개도공사 제1공구 설계	건설본부 2개도처 이호룡 차장	설계

## 공단, 유휴부지를 오토캠핑장 등으로 개발

— 올해 국유재산 활용수익 483억원 목표...지난해 429억원 달성 —

공단은 그간의 "사용허가중심"의 수익구조를 "개발 중심"으로 개선하고 자산개발, 과잉 건설된 잉여시설 활용 등을 통해 금년에 483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 공단의 부채증가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금년 자산수익 구제내역은, 시설자산내 주차장 운영(348개소, 61억원), 태양광 발전용 철도역 출자용 임대(65개소, 3억원), 레일바이크 사업 임대(6개소, 8억원), 오토캠핑장 임대(4개소, 5천만원) 등이며, 지난해 보다 54억원 이상 늘릴 계획이다.

공단은 1억 4,200만㎡(약 77조원)의 국유 철도자산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20년까지 총 2조 6천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해, 수익성 있는 역사와 주변부지 등이 모두 철도공사(코레일)에 무상 출자된 여건 속에서도 유희부지, 폐선 등에 대한 사용허가 임대료로 343억원, 무단점유에 대한 번상금으로 49억원, 시설자산내 광고수입으로 37억원 등 429억원의 자산수익을 올렸다.



## 강원본부, 계측관리 교육 시행

— 실무자 역량강화에 초점 —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건설처장(처장 석호영) 주관으로 지난 21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적용·활용할 수 있는 실무자 중심의 자체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터널(발표자 김병령) 및 가시설(발표자 김진옥) 현장 계측방법"에 발표와 발표내용에 대해 참석자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된 교육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참석자들의 높은 참여가 있었다.

특히 현장에서 가시설물에 대한 계측 방법과 허용치를 초과하였을 경우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실습이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건설처에서는 직원역량 강화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직원들 주관으로 교육 주제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본부 김병령 기자)

## 강스매싱으로 스트레스는 확~!

사기는 쑥~!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 탁구동호회 '강스매싱'은 지난 21일 1/4분기 강원본부 탁구최강전을 개최하였다.

지난 해 말 이후 오랜만에 치러진 정기전으로 본부장과 동호회장(차훈 부장)의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대회를 진행하였다.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1조당 3명으로 구성되어 단체전 경기를 진행하였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빠르게 공을 주고받다가도 온 좋게 네트를 넘겨 이기는 경우 모두 함께 탄성을 질렀으며, 짧은 시간이나마 스트레스를 날리고 동료애를 느끼기엔 충분하였다.

이번 정기전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이변(?)이 속출하여 신입회원들이 고수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정기전 팀별 리그의 우승은 오재훈 차장, 김준걸 차장, 유준상 사원이 차지하였다.

경기 후 강원본부장은 동호회 발전과 더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직원들간 화합의 장을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뒷 돌이를 통해 회원들과 즐거운 저녁시간을 함께 하였다.

(강원본부 김홍섭 기자)



### 한국경제

## 수서發 KTX 운영사 지분 30% 국민株로 판다

2012년 02월 27일 (월)  
28면 사회

### 국토부, 대기업 지분 49%로 제한 특혜 논란 불식 "코레일·야당 설득 기대" ... 오늘 경쟁도입 공청회

정부가 수서-평택 KTX 지분 일부 국유 민공모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 지분도 49%로 제한했다. 대기업 지분 배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분 조방안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경제종합에서 철도학회와 행정학회와 공동주관하는 철도운송사업 경쟁도입 공개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6일 "교통연구원 안을 토대로 정부의 최종안을 4월 중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30%는 국민공모 방식으로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평택 간 KTX 노선은 소유권을 정부가 갖되 운영권은 별도 운영회사를 세워 민간업체에 주게 된다. 정부는 이 운영회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컨소시엄 총 지분 중 51%를 일반공모,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도 할 방침이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는 지분이 30%가 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KTX 수익의 일부를 돌려 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KTX 전체

노선에서 연간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수서-평택 구간의 경우 노선자 위 구간이어서 이익이 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주 방식 매각은 포스코와 한국전력에 사이미 시행한 바 있다. ◆대기업 특혜 소지 없애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대기업 특별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공기업이 최대 11%까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코레일도 같은 맥락에서 11%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코레일의 경영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다. 특히 중소기업이 참여할 경우 지분 10%까지는 가점을 주도록 한 대목이 눈에 띈다. 운영기간은 15년 임대 방식으로 했다. 통상 민영화 방식을 택할 경우 30년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경우는 절반에 불과하다. 운영기간 장기화에 따른 독점우려를 불식시키는 의미다. ◆요금은 싸게, 빛도 갚으면서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기본운임은 현재보다

### 수서-평택 KTX 사업

수서에서 평택까지 총 3조7000억원을 투입해 2011년 6월 착공, 2014년 말 완공 예정이다. 노선 소유권은 정부가 갖되 운영권은 민간 회사에 개방한다. 수서에서 출발한 노선은 평택에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된다. 대부분 구간은 지하로 건설되며 KTX 수서-평택역간 지체영역이 신설된다.



다 10% 이상 내리도록 했다. 임금 추가할 인을 제시하는 업체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연구원 측은 기본운임 인하와 추가할 인을 적용할 경우 현재보다 20% 이상 운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운영회사가 정부에 내는 시설임대료는 높

었다. 현재 코레일이 내는 매출의 31%보다 9%포인트 높은 40%를 시설임대료로 한선으로 설정했다. 더 많은 시설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해서 설임대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코레일이 납부하는 연간 선사용료(약 1000억원)로는 고속철도 건설비용의 이자(매년 4000억원 이상)도 감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고속철도 건설비용은 2011년 14조원에서 2020년에는 30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코레일, 야당 반대 넘어설까 경쟁제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코레일과 야당이다. 코레일은 구간 독식해온 철도운영권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염려한다. 하지만 철도운영 경쟁제 도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사업법, 철도구조개선기본계획 등에 이미 명시돼 있다. 국토부 측은 "코레일 측 주장은 꺾 발목을 빼앗기기 싫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정도 방안이면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 측이 반대해온 대기업 특혜 소지가 크게 줄어든 만큼 양호 일장대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우 기자 leeu@arkany.com  
23.7 X 16.3 cm

### 계시판

## 주요뉴스 (2. 20 ~ 2. 28)

- (기고) 철도혁신 이제 국민이 주도해야(매일경제 2. 20)
- (기고) 철도민간운영체제 도입의 당위성(중도일보 2. 20)
- 대구건설, 수서발 민영 KTX 참여 않기로 (조선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2. 20)
- 철도공단 호남고속철 차량공급자 현대로تم 선정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광주일보 2. 20)
- 도심 관통 철로서 또 사고(무등일보, 전남일보 2. 20)
- KTX 정읍역사 백지화? 전북권 민심 부글부글(동아일보 2. 20)
- 원주~강릉 복선전철 강릉역 지하화(강원도민일보 2. 20)
- "중고속열차 요금 할인 필수 안된다"(강원일보 2. 20)
- 국토부 실적공시비 단가 공고(국제신문, 경북일보, 강원일보 2. 20)
- 철도시설공단 "올 483억 이상 수익 올릴 것" (파이낸셜뉴스, 대전일보 2. 21)
- 철도시설공단 유희부지 오토캠핑장 개발 추진(충청투데이 2. 21)
- '철도 경쟁' 서비스까지 불붙었다(중도일보 2. 21)
- 태백~삼척 영동선 1.8Km 단축(강원일보 2. 21)
- "경전철 적자 절반은 정부가 내리" (동아일보, 서울경제, 국제신문 2. 21)
- 철도공단, 기차길옆 소외계층에 장학금 쏜다(서울경제 2. 22)
- (기고)철도, 공기업 독점이 공익?...서평식 한국철도대학 교수 (파이낸셜뉴스 2. 22)
- KTX 민영화와 행정행위...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매일경제 2. 22)
- "코레일 정비 관련 직원들 상습적으로 음주 근무"(조선일보 2. 22)
- 춘천, 경춘선 중고속 한시적 요금 할인에 반발(경향신문 2. 22)
- 황당 엑스포 안내판, 더 황당한 해명(중앙일보 2. 22)
- 수인선 驛이름 바뀐다(경인일보 2. 22)
- KTX 이용액 8년 만에 3억 명(동아일보 2. 22)
- 공공 발주액 절반수준으로 하락(조선일보 2. 22)
- 철도공단, 철도 주변 학생에 장학금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2. 23)
- 코레일 구로·시흥 차량사업소도 음주 근무 (조선일보 2. 23)
- 낯설어 취한 코레일 민고 열차 탈 수 있겠나 (서울신문 2. 23)
- "경춘선 ITX-청춘 운임, 30% 할인됐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2. 23)
- KTX 민간운영·요금인하 서둘러라 (한국경제 2. 23)
- 수도권에 전철이 없다면 교통혼잡·탄소배출량 등 연 62조원 추가비용 발생(파이낸셜 2. 23)
- 충북, 세종시 연계 전국 사통팔달 교통망 갖는다 (경향신문 2. 23)
-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 확대 시행 (서울신문 2. 23)
- 효율적 철도체계, 선진복지의 기본 (경기일보 2. 23)
- 공공기관 '저승사자' 떴다(서울신문 2. 24)
- 철도안전시설 개량 울 2299억 원 투입(서울신문, 중도일보, 대전일보 2. 24)
- 수인선 '구분소' 공사 재개 주민 반발 또 중지 '야수환' (경인일보 2. 24)
- 코레일, 음주 근무 특별감찰(조선일보 2. 24)
- 일부 지하철 지상파 DMB 중단(매일경제 2. 24)
- 용지 매입비 조기 집행 철도소 총 6694억원 (대전일보 2. 25)
- 수도권 지하철 분당·일산·과천선 지상파 DMB 27일부터 못본다 (서울신문, 파이낸셜 2. 25)

### 경조사

- 김영국 건설본부장 장녀혼
  - 일시 : 2012년 3월 3일(목) 오후 1시
  - 장소 : 리솜스파캐슬 테마동/L1층/로즈마리 홀(충남 예산군 소재)